

홍보 에이전트 연락처: 캐런 핑크 (Karen Fink)
전화번호: 212-782-9378 / 이메일: kfink@randomhouse.com

★“세상에서 거의 제일 억압된 전체주의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에서 살았던 여섯 명의 새터민의 삶을 경탄할 만큼 대단히 개인적인 시각에서 서술한 작품.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기자이자 전 서울 특파원인 바바라 데믹은 북한의 일반 사람들의 일상을 섬세하고 세부적으로 묘사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말에 일본의 항복 이후 임의로 그려진 38선 이북은 언론 검열과 통제가 거의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데믹 기자의 이 작품이 아니었다면 서양 독자들에게 북한 일반 서민들 삶의 이야기는 알려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자가 밝히듯, 북에서의 “일반인”들의 삶은 1990 년대에 들어서자 참혹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수 백 만명의 인민들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생산과 무역은 실제적으로 마비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의 월 노임은 계속 지불되지 않았고 국가 의료 제도는 무용지물이었으며 사람들은 길에 방치돼있는 시체들 위로 지나가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전력이 없어 밤하늘이 한반도의 북한쪽만 칠흑같이 어둡다고 기자가 꼼직하게 묘사한 내용은 북조선이 전세계의 부림(부러움)의 대상이라고 자신의 노동자 인민들에게 믿도록 만드는 북한의 선전물과는 확연히 대조됩니다. 주인공 여섯 명의 장기간에 걸친 집중 인터뷰를 통해 북한 독재정권의 치하에서 그들이 견뎌야했던 엄청나게 힘든 나날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각각 탈북이라는 위험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들이 정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겪은 혼란에 대해 알립니다. 데믹 기자는 이들의 이야기와 무질서 사회로 추락하는 북한의 숨겨진 역사를 하나로 엮으면서, 마음을 사로잡는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 여섯 편을 능숙한 글솜씨로 재구성합니다.”

— 출판인 주간지 <퍼블리셔스 위클리(Publishers Weekly)>에 별포 (대표적) 리뷰로 선정된 작품

세상에 부림 없어라 북한에 사는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

바바라 데믹 (Barbara Demick) 저

Spiegel & Grau 출판사 (양장) / 2009년 12월 29일 판매개시

* 미국 유명잡지 <더 뉴요커 (The New Yorker)> 와 뉴욕주재 영어로 발간하는 문학 계간지 <더 파리스 리뷰 (The Paris Review)> 에 발췌 인용

*

★ “각 인물들의 개인 이야기 서술을 꿰뚫어보는 언론인의 목소리와 강력하게 잘 조화시킨 데믹 씨는 희미한 한 가닥의 희망만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낸 용기있는 개인들과 그들이 살았던 폭악한 국가의 실상을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그립니다.” — 미국 도서관 협회가 출간하는 <북리스트 (Booklist)> (별포 (대표적) 리뷰)

보도로 George Polk Award 및 Robert F. Kennedy Award 수상 경력이 있는 바바라 데믹의 <세상에 부림 없으라: 북한에 사는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 (NOTHING TO ENVY: Ordinary Lives in North Korea)> (Spiegel & Grau 출판사; 2009년 12월 29일 판매 개시)는 여태 보지 못한 북한과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그 사회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북한의 정치에 치중한 서적은 많은 반면, <세상에 부림 없으라>는 일반 시민들의 일상 사는 어딘가에 초점을 맞춘 몇 권 안 되는 저서입니다. 데믹 기자는 여섯 명의 새터민의 지난 15년간의 삶을 되짚어봅니다. 김일성 수령의 서거, 경쟁자 없이 권력을 승계한 그의 아들 김정일, 북한 인구의 20% 정도가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90년대 후반의 식량위기(고난의 행군)의 충격적인 여파, 그리고 증가하는 불법 도강(탈북)의 수 등을 겪은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놀랍도록 상세한 설명으로, 데믹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억압된 전체주의 국가에서 산다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 매우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의도적인 선택으로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국가인 북한은 모든 라디오 다이얼과 텔레비전 채널이 국정 방송국에 고정되어 있고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행각은 처벌을 받는 곳입니다. 고발자는 포상을 받고, 무심코 던진 말 한 마디에 평생 감옥살이를 하게 될 수 있는 경찰 국가입니다.

데믹 기자는 북한 당국의 검열의 손길을 피하며, 여섯 명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꼼꼼하고 섬세한 보도로 전합니다: 그들도 사랑에 빠지고, 가정을 꾸리며, 야망을 키우고, 생존을 위해 싸우고, 정부가 자신을 속였다는 인식에 눈을 뜹니다.

<세상에 부림 없으라>는 전체주의 문헌에 추가될 획기적인 작품으로, 점점 국제적으로 그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닫힌 세계인 북한에 대해 기존에 몰랐던 면을 새롭게 일깨워줍니다.

저자에 대하여

바바라 데믹(Barbara Demick)은 현재 미국 신문사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북경 지국장입니다. 북한관련 보도로 미국 해외기자클럽 인권보도부문상 (Overseas Press Club's award for human rights reporting), 아시아 소사이어티 (Asia Society) 그리고 미국 외교 학술원 (American Academy of Diplomacy) 등의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90년대에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일간지를 위한 그의 사라예보발 보도로 George Polk Award 및 Robert F. Kennedy Journalism Award 을 수상했고, 국제 보도부문으로 Pulitzer Prize 후보 명단까지 올랐었습니다. 기존 저서로는 <로가비나길: 사라예보 한 동네의 삶과 죽음 (Logavina Street: Life and Death in a Sarajevo Neighborhood) (1996)> 이 있습니다.

저자와 인터뷰를 신청하고 싶으시면 캐런 핑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aren Fink 전화번호: 212-782-9378 이메일: kfink@randomhouse.com.

리뷰들의 사본을 받아 보시고 싶으시면 메이건 캐시디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eghan Cassidy 전화번호: 212-782-8271 or mccassidy@randomhouse.com.

세상에 부럼 없으라

북한에 사는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

Spiegel & Grau 출판사 (양장) / 2009년 12월 29일 판매개시

ISBN 978-0-385-52390-5 • \$26.00

NOTHING TO ENVY

ORDINARY LIVES IN NORTH KOREA

Spiegel & Grau Hardcover • On Sale December 29, 2009

ISBN 978-0-385-52390-5 • \$26.00